

참되고 지혜롭게

2023년 9월 30일

하루 하루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하루도 의미 없는 날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의 삶을 이렇게 의미있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누구의 말처럼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저희 가족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모처럼 네 가족이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한국에서 네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한국을 떠난 후 추석 명절을 네 가족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서 다시 만난 저희 가족의 9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8월 15일에 사회복지무 요원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강현이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사회복지무요원은 주소지에서 출퇴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강현이의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주소지인 외할머니 집의 셋집을 빼서 강현이가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느라 분주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낯은 집 안을 수리하고 혼자 밥을 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살림 살이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다 있어야 하기에 살림을 하나하나 장만하는데 마치 신혼 살림 준비하는 듯 하였습니다. ✨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도 마쳤습니다. 강현이는 앞으로 **10월 12일에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여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서울교통공사’에 배치**되어 **21개월간**의 사회복지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수술 현황				
성명	성별/나이	진료과	상태	병실
배현	F/30	외과	안근	외래
김희	F/52	산부인과 (본원)	회복중	외래



강진이도 지난 17일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절묘하게 맞아서 네 식구가 또 다시 한국에서 만나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강진이의 비자 갱신은 잘 이루어졌고, **10월 7일에 가족 중 먼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 입국했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강진이와 저는 치과 치료로 분주하게 치과를 다녔고, 아내는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이 있는 자궁경 수술을 했습니다. 또 강현이는 홀로 지내도록 운전면허증교환 등 필요한 행정적인 일들을 마쳐야 했습니다.



인생네컷

약 두 달 일정의 짧은 시간이고, 네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3주에 불과 하지만,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제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강진이와 강현이를 볼 때,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간다와 케냐에서 어려웠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떤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수 많은 선택들을 해야 했고 그 때마다 하나님은 저희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자란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음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으나 짧은 시간으로 인해 아쉽게도 만나뵙지 못한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에 안식년으로 여유있게 시간을 가졌을 때 꼭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 덕분에 수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저희의 행복한 모습이 '인생네컷'이라는 사진에 다 담긴 듯하여 옆에 사진만 소개해 드립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저희는 언제 다시 한 자리에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의 약속을 뒤로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강진이는 7일에 미국으로, 저희는 11일에 우간다로, 강현이는 12일에 논산 훈련소로.....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뒤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또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간다에서는 저희가 돌아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준다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말입니다.

다음 소식은 우간다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우간다로 복귀하는 날(11일 출국)까지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 강진이가 7일에 출국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연구와 논문에 지혜를 더 하시도록.
3. 강현이가 12일 논산 훈련 입소 후 3주,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잘 하게 하시고, 강현이에게 가장 적절한 곳으로 근무지가 배치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4. 우간다에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과 생활을 잘 하도록.
5. 한국에 남은 가족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 주시도록.



P.O. Box 11701 Kampala Uganda



saltdh@gmail.com / saltkeh@gmail.com



이동해_saltdh / 김은희_saltkeh



이동해_+256(0)774-605808 / 김은희_+256(0)784-239806



후원금 관리_서현교회 권정선 자매(010-5348-2824)